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쏘 KBO 한국시리즈(KS)' 5차전 kt 위즈와 LG 트윈스의 경기. 6대2로 LG 트윈스의 승리. 통합스코어 4대1로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LG 트윈스 선수들이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9년만에 우승한 LG 트윈스, 내년 시즌 전망도 밝다

염경엽 감독 “올해 우승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캡틴 오지환 “선수들 모두 도전적으로 바뀌었다”

LG 트윈스가 한국시리즈 우승 한을 풀었다. LG는 1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쏘 KBO 한국시리즈(KS·7전4승제) 5차전에서 KT 위즈를 6-2로 물리쳤다. 1차전을 패한 뒤 내리 4연승을 질주해 챔피언에 등극했다.

박동원은 2차전에서 시리즈의 흐름을 바꾸는 결승 홈런을 터뜨렸고, 오지환은 3차전에서 9회초 결승 3점포를 날렸다. 승기를 잡은 LG는 4, 5차전을 승리했다. 다시 정상에 오르기가 지 무려 29년의 시간이 걸렸다.

1990년 MBC 청룡을 인수해 창단한 LG는 '신바람 야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KBO 리그 진입 첫 해부터 통합우승을 차지했고, 4년 뒤인 1994년 다시 한 번 페넌트레이스에 이

어 KS까지 제패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LG가 다시 한 번 왕좌에 오르는 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라 내다본 이는 없었다.

최강팀으로 자리를 굳히는 듯했던 LG는 세 차례(1997·1998·2002년) 더 KS에서 정상을 노크했다. 그러나 번번이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하고 준우승만 추가했다.

이후 LG를 기다리고 있는 건 기나긴 영욕의 세월이었다.

2002년 삼성 라이온즈와 KS 6차전에서 9-6으로 앞섰다 9회 이승엽에 동점 3점포, 마해영에 끝내기 홈런을 얻어맞고 무릎을 꿇은 LG는 이듬해부터 2012년까지 가을야구 초대장조차 받지 못했다.

암흑기가 깊어지며 야구팬들의 조롱도 피할 수 없었다.

'D'T' 이론은 LG를 오래도록 괴롭게 한 은 어였다. 야구팬들은 2005년 김재박 당시 현대 유니콘스 감독의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는 인터뷰 내용을 'Down Team is Down'으로 문법에 맞지 않게 변형했다. 이후 LG가 시즌 초반에 좋은 성적을 내다가도 중반 이후 고꾸라질 때면 어김없이 조롱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LG 팬들은 한결 같이 우승을 기다렸다. 올해도 못하면 내년, 내년에도 못하면 다음 해에 반드시 우승을 할 것이라고 간절함을 드러냈다.

LG 염경엽 감독은 “LG 팬들이 오래 기다렸는데 기다림 속에서 한결같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우리 선수단에 절실함을 만들어줬다. 그 절실함을 갖고 이번 시즌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선수들이 페넌트레이스를 치르는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열심히 해줬다. 나

에게 많은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 페넌트레이스 우승 성과를 봤다. 우리 선수들이 또 한 번 성장했다. 한국시리즈에서도 1차전을 패했지만 박동원의 홈런으로 2차전을 이겼다. 우리 선수들이 기가 죽지 않고 자신감 되찾고 흐름을 가져와 우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캡틴” 오지환은 한국시리즈에서 3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며 생애 첫 시리즈 MVP에 등극했다.

오지환은 “팬들이 정말 오래 기다리셨다. 기쁘고 많이 울컥한다. 팀 선배들도 많이 생각난다”며 “염경엽 감독님 말씀처럼 올해 우승이 시작점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LG의 미래를 밝게 전망했다.

염 감독은 “LG는 신구조화 구성이 잘 돼있고 선수들을 잘 키워내면 명문구단이 될 것이다. 내년에 한국시리즈에 올라가면 더 강해진 LG가 돼 있을 것이다. 팬들에게도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했다. 우리는 이 우승이 마지막이 아

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LG가 감점과 명문구단으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을 뗐다고 생각한다

오지환은 “올해 적극적인 모습이 많았다. 여러 시도를 많이 해보면서 선수들이 도전적으로 바뀌었다. (문)성주, (신)민재 등 어린 선수들이 주눅 들지 않고 자신 있게 플레이했다”며 “어린 선수들도, 베테랑 선수들도 도전적인 시즌을 보냈다. 신구조화가 좋았다. 모두가 긴장하지 않고 재미있게 했고, 실수해도 포기하지 말자고 독려했다”고 말했다.

LG는 현재 전력을 유지하면 다음 시즌도 강력한 우승 후보다.

홍창기, 문보경 등 젊은 선수들이 타선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김현수와 박해민, 오지환 등 베테랑 타자들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박명근, 유영찬, 백승현 등 젊고 잠재력이 풍부한 불펜진들은 한국시리즈를 통해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성·오현규·홍현석도 합류...클린스만호, 드디어 완전체

소속팀 일정 등으로 2일 차에 전원 소집...내일 싱가포르전 후 오는 21일 중국과 일정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앞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13일 서울 목동운동장 주경기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드디어 완전체가 된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4일 오후 서울 목동 운동장에서 11월 A매치 소집 2일차 훈련을 진행한다. 훈련에 앞서 선수 2명의 훈련 전 인터뷰를 하고, 이후 미디어에 훈련을 일부 공개한다. 완전체가 되는 첫 날이다.

소집은 지난 13일 이뤄졌는데, 소속팀 일정 때문에 전원이 모이지 못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A매치를 앞두고 23명의 선수를 소집했고 첫 날에는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튼) 등 11명만 훈련에 참가했다.

나머지 12명 중 김영권, 설영우, 김태환, 조현우(이상 울산현대), 김진수, 문선민(이상 전북현대),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 8명은 프로축구 K리그 일정과 장거리 이동 등을 이유로 훈련이 아닌 숙소에서 근육 운동 등 개별 훈련을 진행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다른 해외파인 공격수 황의조(노리치시티)는 13일 소집보다 늦게 귀국해 첫 훈련에서 빠졌고, 공격수 조규성(미트윌란), 오현규(셀틱), 미드필더 홍현석(헨트)은 소속팀 일정을 소화한 후 비행기를 타 14일 오전에 한국에 도착했다.

이에 소집 둘째 날에 23명 전원이 한데 모이게 된 것이다. 첫째 날보다 조금 더 세밀하고 다양한 훈련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23명 모두가 둘째 날 훈련에 참가할지는 미지수다. 협회 관계자는 “아마 23명이 모두 모여 훈련하겠지만, (장거리 비행 등) 컨디션 이유로 팀 훈련에서 빠지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다. 숙소에서 진행하는 개별 훈련도 훈련이다”고 전했다.

클린스만호는 이번 11월 A매치를 통해

첫 실전 경기를 하게 된다.

지난 3월 부임한 클린스만 감독이 소화한 8번의 A매치는 모두 친선 경기였다. 대표팀은 9월과 10월 4경기에서 거둔 무패(3승1무)의 경기력을 11월까지 이어, 순탄하게 월드컵 본선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북중미 월드컵부터 본선 출전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났다. 아시아축구연맹(AFC)에 배정된 출전권은 총 8.5장으로 3차 예선에서 각 조 2위까지 총 6개국에 본선 진출권이 주어진다. 나머지 2.5장은 4차와 5차 예선, 대륙별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 진출 주인공이 정해진다.

어렵지 않게 11회 연속 월드컵에 오를 거라는 예상이 많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더 많은 팀들이 잘 준비해서 예선을 치른다.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도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자세를 갖고 뛰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번 11월 A매치 만나는 싱가포르, 중국 모두 상대적 약체라는 점에 대해서도 “축구에 쉬운 팀, 경기는 없다”며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대표팀의 핵심 공격수로 성장한 황희찬도 “(상대) 약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매 경기가 정말 중요하다. 또 올해 마지막 홈경기인 만큼 (팬 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이번 2연전에서 좋은 성적을 다짐했다.

클린스만호는 오는 1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싱가포르와의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1차전 전까지 목동 운동장에서 훈련을 이어간다.

싱가포르전이 끝나면,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다. 그리고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중국과 2차전을 치르고 해산할 예정이다. 뉴스

손흥민, 외신 선정 ‘역대 EPL 최고의 선수 50위’ 기록

“토트넘에서 슈퍼스타 그 자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홋스퍼에서 활약 중인 공격수 손흥민이 현지 언론이 선정한 역대 리그 최고의 선수 50위에 이름을 올렸다.

영국 매체 ‘90min’은 14일(한국시간) “EPL 통산 최고의 선수를 소개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 먼저 41위부터 50위를 공개했다. 매주 10명씩 공개될 예정인데, 가장 먼저 발표된 50위에 손흥민이 뽑혔다.

매체는 “EPL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격진 중 하나인 손흥민은 토트넘 소속으로 정말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해리 케인(현 바이에른 뮌헨)의 파트너처럼 보였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슈퍼스타 그 자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공격수는 리그 득점왕도 수상했으며, 지난 몇 년간 PFA(잉글랜드프로축구 선수협회) 선정됐다”며 “이제는 토트넘의 주장이며, 케인이 떠난 후에는 최전방을 이끌며 여전히 리그 최고의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붙였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에 입단했다. 이적 초기에는 부침을 겪었으나, 빠르게 적응하며 팀의 간판선수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 2016~2017시즌부터 2022~2023 시즌까지 리그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EPL의 간판 공격수로 떠올랐다. 2021~2022시즌에는 23골을 기록해,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와 함께 리그 공동 득점왕에 오르며 새 역사를 쓴 바 있다.

이번 시즌에도 리그 12경기에 출전해 8골을 넣으며 자로드 보인(웨스트햄)과 함께 리그 공동 득점 3위를 기록 중이다. 또 지난 9월에는 EPL 사무국 선정 이달의 선수상에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손흥민 위로는 다비드 지를라(49위·토트넘·뉴캐슬·에버턴), 이안 라이트(48위·아스널·웨스트햄), 에드윈 판 데르 사르(47위·맨유·풀럼), 맷 트시예(46위·사우샘프턴), 테디 셰링엄(45위·노팅엄·토트넘·맨유·포츠머스·웨스트햄) 등이 선정을 받았다.

부상 회복 안세영, 日 국제대회서 복귀전 치른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삼성생명)이 아시안게임에서 입은 부상을 털고 국제대회를 통해 복귀전을 치른다.

안세영은 14일(한국시간)부터 일본 구마모토에서 열리는 ‘구마모토 마스터스 재팬 2023’ 대회에 출전, 오는 15일 32강전에서 세계 27위 파이위포(대만)를 상대한다.

1번 시드인 그를 비롯해 세계 3위 천위페이(중국), 4위 타이추잉(대만) 등이 출전한다. 2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는 부상으로 출전하지 않는다.

이번 복귀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약 1개월 만이다. 당시 안세영은 여자 단식 결승에서 무릎 힘줄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고 이후 열린 덴마크오픈과 프랑스오픈은 물론 지난주 한국에서 열린 코리아마스터스 대회까지 결장했다. 그가 빠진 사이 천위페이가 큰 랭킹 포인트



가 걸린 주요 대회인 덴마크오픈과 프랑스오픈에서 연이어 우승했다. 부상에서 돌아와 아시안게임 결승에 이어 천위페이를 다시 누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자 단식 외에 남자 복식에 서승재-강민혁, 진용-나성승, 여자 복식 김소영-공희용, 김혜정-정나은, 이유림-신승찬, 혼합 복식 서승재-채유정, 김원호-정나은이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